

더불어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06. 02. (화) 배포 즉시
------	-------------------------

**이재명 후보, 22일간 66회 5,015km 유세
경청과 합성의 ‘광장의 유세’ 광화문에서
시작해 여의도에서 마무리**

이재명 후보는 22일 간의 선거 운동기간 동안(5.12~6.2) 총 66회의 현장 유세를 진행하며, 총 5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였고, 23만명이 넘는 국민들을 만났다고, 중앙선대위 유세본부(공동본부장 박정·이재정)가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간의 유세를 통해 선거운동 시작 전 진행한 ‘경청투어’에 대한 답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왔다. 3차례 경청투어에서 8개 도, 51개 시·군에서 총 1,803km를 이동한 것을 합산하면 5월 이후 총 6,818km를 국민들과의 만남을 위해 이동한 셈이다. 이는 서울에서 출발해 중동까지 갈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

총 66회의 유세 지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권에 20회, 서울 12회, 경상권 11회, 충청권과 전라권에 각각 10회, 강원·제주 3회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수도권에 집중된 유세에 비해 非수도권 유세 비중(53%)이 더 높아졌으며, 특히 대구, 대전, 부산, 울산은 2번씩 방문하기도 하였다.

경청과 함성으로 대표되는 ‘광장의 유세’ 컨셉 답게 현장에서의 시민들과의 교감도 두드러졌다. 어제(6.1) 집계 기준, 이재명 후보는 총 60개의 유세에서 38시간 16분 동안 연설을 진행했다. 유세 1회당 평균 38분간 연설을 한 셈이다.

매 유세마다 평균 4천여명의 청중이 모여들어 총 23만6900명의 국민들과 연설을 통한 소통을 이루었다.(유세본부 추산) 가장 많은 청중이 모였던 것은 광주 유세로, 김대중컨벤션센터 마당에 2만 여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세종, 부산, 안산에서도 1만 여명의 청중이 모여들어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경청했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60명의 찬조 연설자들도 유세를 빛낸 주인공이었다. 소상공인, 학원 원장 등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밥줄 끊겨도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는 박혁권 배우와 광주항쟁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 김가연 배우의 연설도 큰 화제가 되었다. 이 밖에도 이기영, 이원종, 장동직 배우를 비롯해 윤일상 작곡가, 신대철 기타리스트, 이정석 가수, 노정렬 개그맨, 장재근 선수, 송진우 선수, 박문성 해설가, 박동희 해설가, 임형남 건축가, 방현석 소설가, 김덕수 국악인 등 많은 사회 저명 인사들도 찬조연설자로 활약했다.

광화문에서 처음 시작한 이재명 후보의 유세 오늘 저녁 7시 여의도에서 마무리 된다. 여의도는 12.3 내란 계엄의 국민 분노가 집결한 장소로써 들불처럼 번진 빛의 혁명을 완성이자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한 마지막 함성의 광장이 될 것이다. 여의도 유세에는 총괄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그 동안의 찬조연설자들, 선거운동원, 지지자들이 모두 모여 만드는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